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COBOC'에서는 현재 우제길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매일 재즈 공연이 열리는 1층 공간 '리부트'.

창밖에는 무등산 四季가...카페엔 예술이 흐른다

자산동 '무등산 COBOC 커피' 복합문화공간 명소 자리매김

넓은 통창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인상적이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궁금해진다.

무등산 자락 복합문화공간 'COBOC 커피'(이하 COBOC)가 명소로 자리잡았다.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전시회와 재즈 공연, 메이 크업 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문화·예술적 상상력을 키우고 세상과 만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이 캐치프레이즈다.

'COBOC'은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건물 외양과 인테리어다. 100평이 넘는 넓직한 공간과 6m가 넘는 높은 층고가 인상적이다. 좌석 사이를 넓게 잡아 시원시원하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좌석 등 배치도 독특하다. 의자와 탁자 역시 하나하나 작품이다. 건물 바깥에 자리한 주방은 또 다른 볼거리다.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는 2층은 '미술'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조각가 이기원의 작품.

현재 이곳에서는 서양화가 우제길씨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우씨의 대표작인 '빛' 시리즈는 날찍한 공간에 안성맞춤이다. 주황, 녹색, 노랑 등 화사한 불을 연상시키는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희망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000호 규모의 대형 작품부터 소품까지 20여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공간 구성을 장식하고 있다.

흰색의 심플한 전시장에서 감상하는 것과 다양한 실내 인테리어와 어우러진 공간에서 그림을 보는 느낌이 전혀 달라 새롭다.

이번 전시 전에는 고(故) 오승운 화백의 작품들이 손님들을 만났다. 앞으로 순회매로 유명한 다음 선생의 전시가 예정돼 있다. 또 광주미협과 연계해 다

공연 보며 식사하는 '리부트'

매일 3차례 재즈 공연

5월 탱고의 밤·재즈 페스티벌

2층은 커피 있는 전시장

1000호 크기 우제길 작 전시

야외 패션쇼·조각전 구상도

양한 전시를 꾸밀 예정이다. 넓은 야외 공간을 활용한 조각 작품 전시회도 구상중이다.

식사를 할 수 있는 '리부트'는 음악이 주가 되는 공간이다. 피아노, 드럼, 더블베이스 등이 놓인 널

찍한 무대를 갖춘 이곳에서는 매일 세 차례(오후 7시, 8시 10시) 재즈 공연이 열린다. '리부트'는 지역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아예 전속 재즈팀을 꾸렸다.

넓은 무대 공간에서는 특별한 음악회도 열렸다. 재즈기타리스트 민영석, 재즈 보컬 정주혜씨가 출연하는 재즈 콘서트와 그룹사운드 '사랑과 평화'의 기타리스트 최이철이 공연을 가졌다.

지난달 15일에는 소프라노 유희민과 피아니스트 이상록씨가 발레탄던데어 특별음악회를 열었다. 두 사람은 오는 5월 탱고 무용수와 함께하는 탱고 음악의 밤도 준비중이다.

눈에 띄는 곳은 야외 수영장과 독립 공간 카바나다. 지난해에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메이 크업쇼 '꿈'을 열기도 했다. 날씨가 풀리면 야외 패션쇼 등도 열 계획이다.

음식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하나의 '문화'를 즐긴다는 생각이라면, 한번쯤 방문해보면 한

한 곳이다.

대표 최광희씨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중심에 둔 건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구성하고, 그 곳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더불어 예술이 흐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커피이 운영하는 또하나의 공간인 동명동 '커피북은 집' 본사 지하의 '스페이스 영'은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최 대표는 5월께 재즈 페스티벌도 열 계획이다. 지역 실용음악과 졸업한 젊은 재즈 뮤지션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다.

최 대표는 "COBOC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을 꿈꾼다"며 "기회가 닿으면 3층 공간에 갤러리와 소규모 작품을 유통할 수 있는 공연장도 오픈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62-223-59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4개 국어로 쓴 남도 문화

전남문화재단 '이야기가...' 펴내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전남의 문화자원을 알기 쉽게 소개한 다국어 책자가 발간됐다.

전남문화재단은 전남의 도내 22개 시·군 대표 문화자원 66곳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언어로 소개한 '이야기가 있는 땅 그림 같은 전라남도' <사진> 다국어 책을 발간했다.

'이야기가 있는 땅 그림 같은 전라남도'는 지역 출신 한국화 작가 신양호, 박성남, 이혜리씨가 직접 현장을 답사한 후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낸 한국화 작품을 수록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번역 및 감수는 한중완(조선대 중문과 교수), 제레미 에세프(Jeremie Eyssette·조선대 프랑스어학과 교수), 요시다 야요이(조선대 일본어 강사)씨 각각 맡았다.

이 책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 안내소 및 철도역·버스터미널 등을 비롯해 전남 도내 22개 시·군 도서관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582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어! TV서 본 댄서야

한선천·하휘동 등 스타 무용수 광주 무대

광주로얄발레단,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단체로 활동중인 광주로얄발레단이 'FIRST MEMORY'라는 주제로 올해 첫 공연을 진행한다. 7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이번 무대에는 인기 TV 프로그램 '댄싱 9'을 통해 스타가 된 한선천·김명규·남진현·최수진·하휘동씨가 출연한다. 오프닝과 피날레 무대는 로얄발레단 박선희의 단장이 안무한 작품을 전 출연진들이 함께 선보인다.

클래식 발레의 고전 '해적' 중 가장 유명한 장면인 알리와 메도리 공주, 콘라드의 3인 무를 김명규·최예림·하지석씨가 공연하며 김명규씨는 박선희씨가 안무한 'Miss U'도 선보인다. 그밖에 한선천씨가 안무하고 직접 출연한 'CUBE', 스트리트 댄서팀 비주얼쇼크 크루와 하휘동씨가 함께 한 'Old and New', 현대무용가 남진현과 최수진이 호흡을 맞춘 'Gription'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82-321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흔들리는 봄 꽃...갤러리엔 꽃 향기

행촌미술관 오늘부터 김은숙展

매화와 동백은 진한 향기를 머금고 봄과 함께 찾아온다. 해남에 있는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 행촌미술관이 꽃 향기 가득한 작품들로 2015 봄맞이 기획전을 연다.

6일부터 4월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진작가 김은숙 작품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있을까'. 전시 주제는 시인 도중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비롯됐다.

김씨는 동백과 매화를 비롯한 봄꽃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또 그동안 작가의 창작 활동에 동행했던 동료와 해남 일대의 동백과 매화를 그려온 예술가인 송필용, 김익, 홍선용, 김범석, 신태수, 이인 작가의 작품 10여 점도 함께 전시된다.

김씨와 함께 전시를 하는 작가들은 강진 백련사 동백, 해남 산이면 매실농장의 매화를 비롯해 한반



김은숙 작 '정원-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도에서도 봄 식물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해남과 강진 일대의 풍경과 꽃을 화폭에 담았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춘국 고희동 선생의 '매화'도 함께 전시돼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문의 061-536-411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3일까지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유·스퀘어문화관이 오는 23일까지 '동물, 나의 또 다른 가족'을 주제로 '제5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함

께 가족을 담은 사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유·스퀘어문화관은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 등 모두 26점의 작품을 선정한다. 입상자들에게는 연극 '러브애크츄리' 초대권 등이 주어진다. 또 시민 전시공간인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작품은 개인당 5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디지털 이미지(JPG, JPEG) 형식의 파일만 제출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TRIAISHUIMA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댄서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